1강

영혼을 데려가는 차사의 내력, 차사본풀이

영혼을 데려가는 차사의 내력, 차사본풀이

강정식(제주학연구소 소장)

1.

<차사본풀이>는 인간의 영혼을 저승까지 데리고 가는 강림차사의 내력을 담은 이야기이다. ‘ᄉᆞ제본’, ‘강림차사본’이라고도 한다. 시왕맞이, 차사영맞이, 귀양풀이 등에서 구연한다.[1] 큰굿의 경우에는 거듭 구연한다.[2] 이때의 본풀이는 ‘데명왕차사본풀이’와 ‘인간차사본풀이’로 달리 명명할 수 있다. 영등굿이나 잠수굿에서 구연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는 ‘요왕차사본풀이’라고 한다. 달리 ‘거북ᄉᆞ제본풀이’라고도 한다.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맡은 차사인 요왕차사를 위한 본풀이인 셈이다.

<차사본풀이>는 무속의례 가운데 귀양풀이의 근원을 제시하는 신화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의 안사인본 <차사본풀이>에는 귀양풀이와 관련한 대목이 없다.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안사인본 자료는 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료로 공인되어 있지만, 실제 사정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차사본풀이는 시왕맞이에 속한 하위 제차이기도 하다. 바꾸어 말하면 독립제차가 아니라는 뜻이다.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등은 독립제차로도 마련된다. 본풀이 자체의 위상에 견주어보면 독립제차로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차사본풀이가 아니라 시왕맞이의 특별한 면모라고도 할 수 있다. 비록 맞이굿에 속해 있다고는 해도 독립제차와 같은 수준의 위상을 갖추고 있기는 마찬가지

1) 차사영맞이를 대신하는 의미가 있는 제차여서 종종 영혼을 위로하는 의미의 제차가 포함된 소규모 의례에서도 구연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테면 당주제에서 구연하기도 한다.
2) 신굿에서는 삼시왕맞이에서도 구연한다. 이때 <차사본풀이>와 <초공본풀이>를 연이어 구연하는 사례도 있다.

이다.

〈차사본풀이〉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연한다. 일반적으로는 심방이 앉아서 스스로 장구를 치면서 구연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북을 치면서 구연하기도 한다. 신굿에서는 심방이 소미가 치는 연물에 맞추어 서서 노래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구연하기도 한다.

〈차사본풀이〉는 본풀이 가운데 의례적인 내용이 삽입되는 것이 특징이다. 강림이 저승으로 가는 길에 일흔여덟 갈림길을 만나는데, 이 길에 대한 풀이 대목이 그러하다. 모든 신의 위계 차례로 언급하면서 이들이 들어간 길이라고 길게 풀이한다. 이것은 본풀이의 서사 전개와는 무관한 것이다. 의례성이 강한 본풀이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

〈차사본풀이〉는 제주도에서만 전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본래 본토에서도 널리 전승되던 이야기로 보인다. 같은 유형의 이야기로 거론되는 것은 다음 셋이다. 관북지방의 짐가제굿, 충북의 〈영동이 유래담〉, 전북의 〈흥덕현감설화(興德縣監說話)〉 등이다.[1] 자료가 많지는 않으나 북부, 중부, 남부에서 고루 전승하던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신화와 전설 형태로 전승하면서 오랫동안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차사본풀이〉의 전반적인 내용은 본토와 공유하는 것이다.[2] 따라서 제주도에서 새롭게 꾸며진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게 한다.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1) 초반부에 중이 등장하여 절로 이끈다.
(2) 살해당한 삼형제가 꽃으로 화생한다.
(3) 강림이 각시의 능력이 범상치 않다.

---

1) 짐가제굿 무가는 함경도 함흥 자료이다. 이고본분과 지금섬본이 있다. 각각 다음 책에 소개되어 있다. 김태곤, 『한국무가집(3)』(집문당, 1978). ; 임석재 · 장주근,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13) : 관북지방무가』(문화재관리국, 1965)

2) 관련 연구 가운데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은 다음 논문이다. 김형근·김헌선,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 함흥 <짐가제굿> 무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008 가을호 제31권 제3호(통권 112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8), pp.239~271.

(4) 과양셍이 각시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다.
(5) 강림이 차사로서의 좌정과정이 구체화되었다.
(6) 상장례의 기원이 구체화되었다.
(7) 귀양풀이의 근거를 분명히 하였다.

(1)은 일반신본풀이의 공통적인 면모이다. 일반신본풀이의 경우 대체로 초반부는 어떻게든 중의 등장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대개 기자(祈子)를 위하여 절을 찾는 것과 달리 수명 연장을 위하여 절을 찾는 것이 다를 뿐이다.

(2)는 제주도 무속의 기본 관념을 충실히 따른 대목이다. 이북 지방의 자료에서는 죽은 형제가 물고기로 화생(化生)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차사본풀이>에서는 꽃으로 설정하였으니 이북의 경우와 견주어 보면 매우 다른 설정임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 생명의 씨앗을 생불꽃으로 설정하는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겠다.

(3) 강림이 각시의 우월한 면모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면모가 다른 지방의 경우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북 짐가제굿(이본)의 경우에도 남편에게 귀신 잡을 방도를 가르쳐주는 일을 맡는다. 그러나 <차사본풀이>에서 강림이 각시의 면모가 더욱 강화된 것도 사실이다. 강림이 각시는 신혼 때부터 강림이에게 소박이나 맞던 여인네였다. 그러나 강림이가 위기에 처하자 모든 것을 알고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아는 능력을 펼쳐 보인다. 이것은 제주도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이다.

(4) 과양셍이 각시를 사지를 찢어 죽인다. 처벌의 수준이 매우 엄중하다. 이것은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서는 드물지 않은 설정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문전본풀이>에서도 볼 수 있다. 노일저데귀일이 뚤에 대한 녹디셍인 형제의 복수도 만만치 않다. <이공본풀이>의 복수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할락궁이는 자현장자의 일족을 한 자리에서 멸족시켜 버린다.

(5) 강림이 차사가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염라대왕을 잡아오는 과정도 다른 지방 이야기에 있는 것이지만 <차사본풀이>에서

강림이의 면모를 더욱 영웅적으로 그렸다. 이북 자료(이본)에는 강림이가 바보 같은 인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반면 이북 자료(지본)에서는 관아 소속 사령으로 나중에 염라대왕을 따라가 차사가 된다고 설정하였으니 <차사본풀이>와 매우 유사하다.[1] <차사본풀이>에서는 강림이가 죽어 저승으로 간 뒤에 인간세상을 오가며 영혼을 데려가는 일을 맡는 과정을 구체화하면서 강림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려고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강림의 능력이 신화의 주인공에 합당한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6) 장례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다각도로 삽입하였다. 입관, 성복, 일포, 우제 등 제반 과정을 거론한다. 각 과정의 특징적인 면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한다.

(7) 귀양풀이의 근거를 분명히 담았다. 귀양풀이는 과양셍이를 처단하는 데 동원되었던 청년과 소에게 벌어먹을 구실을 마련해주는 데서 마련되었다. '원귀양 신풀이', '일곱 신앙 아홉 귀양' 등의 표현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귀양풀이는 장례 과정의 궂은 것을 풀어내는 의례이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동방삭 전승은 제주도에서 덧붙은 것이라는 점이다. 동방삭 전승은 강림이의 면모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한계에 닥쳤을 때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동방삭 전승이 <차사본풀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물론 심방사회에서는 심각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에 굳이 끼어들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차사본풀이>는 의례와 밀접한 관련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심방은 질침을 하면서 차사의 복색을 갖추어 입고 차사의 구실을 대신한다. 먼저 차사가 하는 일을 설명한다. 차사는 염라대왕의 명령을 받고 인간세상으로 내려온다. 각 마을 본향을 찾아 본향신이 지닌 문서를 자신의 것과 대조하며 데려갈 사람을 찾는다. 본향신을 앞세워 그 사람의 집으로 찾아간다. 문전과 조왕 때문에 영혼을 데려가지 못하다가 졸던 조왕을 붙잡아 다그쳐서 영혼을 데려간다. 이처럼 여러 신의 직능이 <차사본풀이>를 통해서 정리된다.

---

1) 이 점에 있어서는 <영동이 유래담>도 유사하다. 한편 <영동이 유래담>은 영등제의 기원설화로 주목할 수 있다.

3.

<차사본풀이>의 전개를 정리해보면 이야기가 겹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단락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범을왕 세 아들은 단명할 운명이다.
(2) 범을왕 세 아들은 생명 연장을 위해 절에 가서 생활한다.
(3) 범을왕 세 아들은 잠시 고향을 찾아가다가 과양셍이 각시에게 살해당한다.
(4) 범을왕 세 아들은 꽃으로 화하여 과양셍이 각시의 아들로 태어난다.
(5) 과양셍이 각시의 세 아들이 과거급제한 뒤 동시에 급사한다.
(6) 과양셍이 각시는 김치원에게 신원한다.
(7) 김치원은 염라대왕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어서 난처하다.
(8) 김치원은 강림에게 누명을 씌워 염라대왕을 붙잡아 오라고 한다.
(9) 강림은 우여곡절 끝에 염라대왕을 붙잡아온다.
(10) 염라대왕에 의하여 사실이 밝혀지는데, 그 결과 범을왕 세 아들은 환생하고 과양셍이 각시는 죽음을 당한다.
(11) 염라대왕은 강림을 데리고 가서 차사의 일을 맡긴다.

억울하게 죽은 범을왕 삼형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되살아나서 생명을 연장한다. 먼저 과양셍이 각시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나 꽃으로 환생하여 그 자식으로 태어나 급사함으로써 일차적인 복수를 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야기의 중간 단계일 뿐이다. 이 이야기에서 이들이 주인공인 것도 결코 아니다. 이들은 아직 환생하지 못하였고 과양셍이 각시는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없다.

범을왕 삼형제의 환생과 복수를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구실은 다른 인물들이 담당한다. 김치원은 염라대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믿고 강림이로 하여금 염라대왕을 데려오게 한다. 강림은 저승 여행을 하여 직접

염라대왕을 데려온다. 염라대왕은 범을왕 삼형제를 살려내는 한편 과양셍이 각시의 악행을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림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누구나 주인공 구실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지녔다. 염라대왕은 그렇다고 치고 김치원과 강림도 보통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저승 여행을 한 강림이 더욱 비범한 인물로 설정되었다.

관련 설화를 종합할 때, 염라대왕(함경 이본) - 원님(충북, 전북) - 강림(함경 지본, 제주) 등으로 주인공이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근원의 이야기를 각 이야기의 종류에 적절한 방식으로 바꾼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천상이나 저승의 신에 대해서는 신화를 꾸며내지 않는 반면 이승을 왕래하거나 이승의 일을 돌보는 신에 대해서는 신화를 적극적으로 꾸며낸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강림은 염라대왕을 붙잡아오는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승에 가서 적베지를 까마귀에게 맡기는 실수를 한 탓에 재차 능력을 입증해야 했다. 이 대목에 동방삭 전승이 삽입된다. <차사본풀이>에 삽입된 동방삭전승은 성남시 탄천(炭川)의 지명유래담을 꾸미는 데도 쓰였다. 누군가 <차사본풀이>를 참고하여 꾸며낸 창작전설이 아닌지 의심된다.

동방삭 전승을 토대로 하면 <허웅애기본풀이>가 <차사본풀이>의 삽입본풀이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저승에 간 허웅애기가 말미를 얻고 이승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저승으로 붙들려가서 영영 다시 이승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어린 아이를 두고 죽은 여성 영혼을 위한 차사영맞이의 <차사본풀이> 말미에 <허웅애기본풀이>가 삽입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사본풀이>는 사정에 따라 동방삭 전승, <허웅애기본풀이> 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연되던 것일 수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허웅애기본풀이>는 특수본풀이가 아니라 삽입본풀이라고 해야 옳겠다. 삽입본풀이가 아니라 해도 특수본풀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실전본풀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른 유형의 본풀이에 대한 명명방식을 적용하자면 기타본풀이라고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일반신본풀이라고도 할 수 없다. 허웅애기는 신이 아닐 뿐더러 독립적으로 구연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